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불시에 오나, 준비된 곳, 준비된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박 재 봉

삼원금형정공(주) 상무이사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특히 금속제조업은 3D업종으로 불릴 만큼 작업 자체가 위험하고,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 이러한 환경이다 보니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한번이라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삼원금형정공(주)는 열악한 환경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1년이 넘게 단 한건의 공상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무엇이 안전한 삼원금형정공(주)를 만들었는지 박재봉 상무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삼원금형정공(주)는 어떤 기업이고, 작업에 있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 삼원금형정공(주)는 82년에 창립된 프라스틱 금형 설계 · 제작과 성형물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위험한 부분이 많은 작업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우리 회사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나 2년전 KISA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지금까지 단 한건의 공상재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와 지금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당시 직원들은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혼란스러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사의 사고사례를 5일에 한번 꼴로 지속적으로 교육하였고, 작업환경이 개선되면서 직원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이제는 스스로 안전점검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대수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겁니다. 그러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3D업종으로 분류되는 금속업에서 근로자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입니다.
한 예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계차에 안전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체하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이어졌던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제거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계차 레일 위에 볼트나 이물질이 있는지, 호이스트의 와이어로프가 파단된 소선이 있는지 작업시 작전에 항상 점검을 하고 작업에 임할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밑거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밑거름이라면 경영주의 관심과 지원일 것입니다. 아침조회 때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당부하는 관심과 하루 한번 이상 현장을 손수 찾아 환경의 문제점과 근로자로 하여금 문제점을 듣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솔선수범하는 경영주의 자세는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경영자의 안전마인드 부족과 안전경시인데, 우리회사는 그 중 하나인 경영주의 자세는 해결된 셈입니다. 한 예로, 현장 순찰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팀장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추후 담당 근로자로 하여금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는 2차 개선조치가 대표자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최고경영자의 안전마인드가 오늘 삼원금형정공을 만든 바탕입니다.

이 곳 임원님들의 안전마인드가 높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특히, 상무님께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당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던데, 안전에 대해 각별히 생각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저도 88년 10월경 이곳에서 작업을 하다 안전사고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사고로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없습니다. 한순간의 불찰로 평생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고로 병원에 누워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는데, 나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그리 급한 것도 없었는데, 조금만 생각하고 차분히 작업을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89년 어느 날 성실한 청년이었던 동료가 호이스트 작업을 하다 중량물에 의해 다리가 깔리는 사고로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제기능을 상실하면서 장애와 함께 커다란 실의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실의에서 벗어나 농사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그 때 상처는 장애로 남아 평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는 치유되는 과정이 부모와 가족들에게 차마 있어서는 안될 불행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로 남아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업재해가 가정을 파탄의 길로 접어들게 한다는 말이 현실이더군요.

이 때부터 안전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고, 지금도 직원들에게 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산업현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영자와 그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근로자 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사고는 예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불안전하다 싶으면 불시에 발생하는 것이 산업재해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업장이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은 어느 누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주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어진 안전수칙을 기반으로 작업에 임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에서의 바람직한 직장생활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같이 거창하고,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행동으로 미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여겨집니다.

〈최종덕 기자〉